

전북환경연합 “민주당 또 새만금 팔이” “이원택 측 식비 안 받았다” 식당 업주 회견에 파장

6.3 지선 D-19

**성명서 민주당 지도부 ‘맹비난’
 “선거철마다 새만금 이용” 직격
 “원팀·속도전”으로 도민 기만
 “새만금 회망고문 이제 끝내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후보들이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해묵은 새만금 팔이를 나섰다”고 맹비난했다.

단체는 “지난 35년 간 전북의 표심을 낚는 ‘꿀단지’로 새만금을 이용해 온 이들이 이제는 ‘당정청 원팀’과 ‘KTX 속도전’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13일 이틀 만에 또 전북을 찾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제 새만금33센터에서 열린 전북·새만금 사업 지원 현장간담회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은 힘 있는 민주당 후보만이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며 이원택 도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 엄청난 힘으로 지난 수십 년 간 민주당이 새만금에서 해온 일이 무엇인가? 결과는 참담하다. 파는 만큼 써먹지는 새만금도, 생태계가 붕괴된 방조제 앞바다, 그리고 예산만 축내며 지지부진한 공정을, 덩그러니 남아 있는 챔버리 부지의 글로벌센터가 그들이 자랑하는 원팀의 성적표다”며 “한 원내대표의 발언은 정책적 대안이 아니라 오직 표만을 의식해 쫓겨난 공약이나 개발 공약만 남발하는 것에



전북도 대형 공사장 안전 점검 노홍석 전북도지사 권한대행이 14일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함께 추락·화재 예방시설과 작업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사진=전북자치도>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또 “현대차가 원하면 다 된다?” 4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 발언은 민주당 지도부와 후보들이 외치는 ‘속도전’의 실체는 결국 기업의 요구에 공공의 자산을 바치는 ‘행정 포기 선언’이자, 35년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 하는 ‘졸속 개발’의 서막이다”고 전제한 뒤 “대통령조차 새만금의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새로운 전환을 언급하는 이 시점에, 지역 정치권만은 여전히 써먹어가는 물 위에서 장밋빛 신기루를 그리며 표를 얻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새만금은 속도가 핵심, 당정청 원팀은 KTX? 이원택 예비후보의 말은 여전히 땅부터 보여주지는 개발 속도전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방향이 잘못된 열차는 빠른수록 더 큰 참사를 부른다”며 “새만금이 답답한 사업의 전형이 된 것은 환경단체 때문이 아니라 수질 개선과 미래 비전 없이 토목 공사에만 매몰된 정치권의 무능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 고한다. 선거 때만 되면 반복되는 ‘새만금 팔이’는 이제 끝내야 한다. 방향 잃은 속도전은 결국 전북을

끝없는 새만금 수렁으로 몰고 갈 ‘탈선 열차’가 될 뿐이다”며 “이번 선거가 낡은 정치의 연장이자 ‘새만금 회망고문 시즌 2’가 되지 않으려면, 민주당은 기득권의 오만함을 버리고 전북의 생존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거듭 대안을 촉구했다.

/장정철 기자

**정읍 식당 업주 도의회서 회견
 “김슬지, 후불가능 여부 물어”
 이 후보 측 “현금두고 나와” 반박**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원택 후보 측의 주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당시 모임 장소였던 정읍 모 식당 업주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 측으로부터 직접 식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음식점 업주 A씨는 1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말 식당에서 열린 이 후보와 지역 청년 20여 명의 모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저는 민주당 관리당원이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다”고 운을 뗀 뒤 “당시 참석한 청년들이 듣고 향간의 논란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식비 대납 의혹과 관련, “식비는 저에게 줬다고 하는데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슬지 도의원이 식대를 물어보면서 금액이 부족하니 후일에 해도 되는지 물어 그렇게 하라고 했다”며 “식당 안에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식비를 줬는지, 각숯했는지는 목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원택 후보 측이 “행사 중간에 이 후보가 자리를 뺐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참석자들이 거의 마무리할 때쯤 같이 밖으로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두 차례 전화가 와 당시 상황을 간단히 물어봤다”며 “통화 시간은 길지 않았고 정확히 기억 나지 않는데 오늘 기자회견과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 줬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시 식당 모임에 참석했던 청년 2명도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원택 민주당 도지사 후보 측은 곧바로 반박회견에 나섰다.

당시내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던 당시 자리에 이원택 후보의 수행원인 B씨는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에서 당시 이원택 의원이 결제하라는 뜻을 밝혀 카운터에 현금을 두고 나왔고 당시 A씨도 현금의 존재를 인지했고 의혹 제기 후 이를 인정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장정철 기자

JBT 광고 문의 063-282-9601
 구독 문의 063-282-9603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도민 신뢰 배반한 공천”

“말바꾸기·이중잣대 정치” 직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최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경선 과정과 이원택 후보, 정청래 지도부를 비판했다.

<참여자치 논평> 2026.05.13.

상대 후보에겐 엄격한 정치적 책임, 자신의 발언은 정치적 수사라는 이원택 후보와 전북지역 경선에 들이댄 정청래 지도부의 이중잣대가 닳았다.

전북지역은 오랫동안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고, 민주당의 정치적 뒷받침이 되어주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도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겸허히 받들기보다, 전북을 자신의 소유물인 양 딱 주무르듯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도민들은 이번 경선에서 의사결정권을 아예 빼앗겨 버렸다. 도민들이 그동안 보 내준 지지에 대해 민주당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민주당이 결정하면 도민들은 그저 따라야만 한다’는 오만함 뿐이다.

상대 후보를 향해 ‘내란 동조’라는 극단적 프레임에 씌우며 ‘정치인은 자신의 행위에 직을 걸고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이원택 후보가 정자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적 수사였다고 발을 뺐다.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야말로 말바꾸기와 거짓의 전형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원택 후보는 과거 전주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책임을 가진 전주시의원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임기를 채우지 않은 채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전주시 비서실장으로 이동한 바 있다. 유권자가 부여한 책임보다 자신의 사적 이익이 먼저였다. 들끓는 비판에 ‘다시는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전주시 행정 핵심 요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게 나설 때에도 도지사 출마를 위한 정치적 디딤돌로 위원장직을 이용할 것이라는 여론의 의심에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던 그는 결국 스스로 약속을 뒤집고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 애초에 자신의 발언을 지킬 의사마저 없었던 그에게 ‘자신의 말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정치인’이라는 비판은 사치에 불과했을 수도 있다.

전북은 지금 낙후와 소멸의 위기 속에서 전환의 리더십이 필요한 절박한

시점에 있다. 그러나 정청래 민주당 지도부는 편파적인 이중잣대로 전북의 미래 비전과 정책 제안보다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린다면 이원택 후보를 선택했다. 다가올 정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연임만을 앞세운 지도부가 민심보다 조직 논리를 우선시한 것 아니냐며 세간은 의심하고 있다. 거대한 민심을 살피기보다 알량한 당내 조직 표에 군침을 흘린 공천이라면 이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도민들에 대한 배반이라 해도 과하지 않다.

이제 곧 지방선거 본선이 시작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전북도민의 분노와 실망을 직시하고, 자신의 발언에는 책임조차 지지 못하면서 거짓과 말바꾸기로 모면하려는 함량미달 후보 이원택 공천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을 믿고 지지해온 전북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정청래 지도부가 이 기회를 버린다면 결국 도민들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전북의 미래보다 계파와 당권,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공천은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

2026년 5월 13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김영기 박경희 윤찬영 이강주

전북자치도, 성평등 공직문화 조성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전북도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상호 존중 기반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도는 14일 도청 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대한 공직자 인식을 높이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공공기관 사례와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실용성 있는 교육을 진행해 현장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강의는 국영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전문강사인 유정흔 강사가 맡아 진행했다.

<2면에서 계속>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9기 교육생 모집

신청기간 2026.4.30.(목) ~ 5.29.(금) 15:00까지
 신청방법 스마트팜코리아 누리집(www.smartfarmkorea.net)

지원대상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청년
 1월 1일 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
 (주민등록상 '86. 1. 2. ~ '08. 1. 1. 출생자)

선발절차

적격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6.1.-12.	6.24.-26.	7.6.-8.	7.15.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교육기관
 전국 4개소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보육센터	교육품목
전북 김제	딸기, 토마토, 오이, 엽채류
전남 고흥	딸기, 토마토, 멜론, 아열대작물(레몬 등)
경북 상주	딸기, 토마토, 오이, 멜론
경남 밀양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가지

현장설명회

장소	일정
전북 김제 보육센터	5. 7. (목), 14:00~16:00
전남 고흥 보육센터	5. 8. (금), 14:00~16:00
경북 상주 보육센터	5.11. (월), 14:00~16:00
경남 밀양 보육센터	5.12. (화), 14:00~16:00

* 입장·정소 변경 시 스마트팜코리아 누리집 별도공지
 ** QR을 통해 사전등록하고 설명회 참석 시 '뉴리코 키랄' 증정

교육과정
 스마트팜 기초 입문(이론)교육 · 교육형 실습 · 경영형 실습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스마트팜 분야 전문인력 육성(20개월 과정)

입문(이론) 과정(2개월, 180시간 이상)

- 스마트팜 농업기초(경영관리·시설관리·작물생리·품종재배), 스마트팜 관련 정보통신기술 및 데이터 이해·관리 교육 등
- AI 및 데이터 활용 등 외부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한 특강 등 진행

교육형 실습(6개월, 480시간 이상)

- 보육센터 실습 온실과 스마트팜 선도농가 온실 등 현장실습을 활용한 스마트팜 경영 노하우 축적 및 벤치마킹 등

경영형 실습(12개월, 960시간 이상)

- 교육생 책임 하에 영농·경영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경영실습 온실 구역 제공(약 330m²/1인) 등
- 보육센터별 여건에 따라 면적 또는 인원비 다룰 수 있음

스마트팜코리아(콜센터) ☎ 1522-2911
 전북 김제 보육센터 ☎ 063-290-6436(6422, 6434)
 전남 고흥 보육센터 ☎ 061-830-5044(5043)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063-919-1774(1786)
 경북 상주 보육센터 ☎ 054-537-8827
 경남 밀양 보육센터 ☎ 055-254-4754(4755, 4752)

도, 대형 건설현장·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강화

도·유관기관·민간 전문가 참여 감나무골재개발·덕진수영장 점검 화재·추락 등 위험요인 사전 차단

전북도가 대규모 건설현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중심 안전점검을 강화하며 재난 예방과 도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도는 14일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 재개발사업 건설현장과 덕진수영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대형 공사현장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전주시 관계 공무원, 산업안전·건축·전기·소방

분야 민간 전문가, 시설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먼저 점검이 이뤄진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사업 현장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 공동주택 28개동, 1,914세대가 조성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장이다. 현재 공정률 약 82% 수준으로 내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현장에서 추락방지시설 설치 상태와 화재위험 작업 안전관리 실태, 작업자 보호장비 착용 여부, 자재 적치 상태와 통행로 확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고층 공동주택 공사현장 특성을 고려해 화재 발생 시 대응체계와 소방·피난설비 구축 현황, 근로자 안전교육 운영 실태 등도 함께 확인했다.

노홍석 권한대행은 “공정 후반부는 내부 마감공사와 장비 작업이 동시에 이



<사진=전북도>

루어져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라며 “준공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마지막 공정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덕진수영장에서는 건축·전기·소방 분야 전문가와 함께 전기·기계설비 운영 상태, 비상구 및 피난동선 확보 여부, 미끄럼·낙상·익수사고 예방 대책 등을 중점 점검했다.

/장정철 기자

박지원, 군산·김제·부안을 재보선 후보자 등록

“전북 대도약 기회 살리겠다” 새만금-RE100 산업 육성 공약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군산·김제·부안)는 14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박 후보는 이날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제·부안·군산 대야·회현면 주민 여러분께 더 낮은 자세로 인사드리겠다.”라며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 바닥에서부터 성실하게 선거운동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는 단순히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동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는 단순히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동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김제·부안·군산은 지금 새만금 현대차 9조 투자, RE100 산단, 수소산업, 피지컬시, 농생명 미래산업 등 다시 오기 어려운 대도



박지원 후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농어촌 소득 안정, 청년 일자리, 교통·물류 인프라, 정주여건 개선, 지역상권 회복 등 김제·부안·군산 대야·회현면의 오래된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겠다.”라며 “국회에서 예산과 입법, 정부 부처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을 끝까지 챙기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최초의 평당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김제시 고문변호사, 전주시체육회장,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1만 3천명 빅데이터 구축

7월 31일까지 조사원 방문 진행 흡연·음주 등 17개 항목 조사 지역 맞춤형 건강정책 활용 예정

전북도는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도민의 건강 수준과 건강행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정책 수립과 건강격차 해소에 활용하기 위해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 조사로, 전국 260개 보건소가 참여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 보건소와 전북대학교·원광대학교가 협력해 조사를 수행한다.

이번 조사는 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 약 1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해 태블릿PC를 활용한 1대1 면접 방식으로 실시된다. 수집된 개인정보와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조사항목은 △흡연·음주·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정신건강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의료이용 △노쇠 등 총 17개 영역

으로 구성됐다. 도는 조사를 통해 지역별 건강 수준과 생활습관, 질환 특성 등을 종합 분석해 실효성 있는 건강정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결과는 올해 12월에 공개될 예정이며, 시군 보건사업 계획 수립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건강증진사업 평가 등 지역 맞춤형 보건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여 간 건강 격차와 취약 분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도민 체감형 건강 정책을 강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도는 최근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지표에서 현재흡연율 16.4%, 월간음주율

52.2%, 스트레스 인지율 21.7% 등이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건강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지역별 건강 수준 변화와 정책 효과를 더욱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도민 건강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건강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라며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 생산을 위해 조사 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김관영 “당 아닌 도민 소속 후보”...전북지사 본선 돌입

전북도지사 후보 등록 완료 50조 투자·대기업 유치 강조 익산 제2혁신도시 공약 발표

무소속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후보는 14일 “당의 눈치를 보는 후보가 아니라, 오직 도민의 눈치만 보는 ‘도민소속’ 후보로 당당히 나섰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한 뒤에 ‘페이스북’을 통해 “도민소속 후보 김관영, 오늘 6.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후보 정식 등록을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4개 시군 전역 1,530명의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추천서를 보니, 그 어떤 정당의 공천장 보다 무겁고 엄중



김관영 후보

한 책임감이 깊이 몰려 온다”며 “한 글자 한 글자 꾸욱 눌러 써 주신 그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예비를 떼고 진짜 승부를 시작한다”며 “당의 간판이 전북의 미래를 결정하던 시대를 넘어, 전북의 선택은 오로지 도민만이 할 수 있다는 신념 하나로 묵묵히 견뎌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년간 도민 여러분과 함께 일궈온 성과를 중단없이 이어가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K-이니셔티브를 전북-이니셔티브로 전환해 지역 균형발

전의 중심에 전북을 세우고, 50조 투자와 대기업 15개 유치 약속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거대한 변화를 위해 당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달려와 주신 수많은 동지들이 있다”며 김 후보를 응원하고 함께하는 인사들을 소개했다.

김 후보를 지원하는 인사는 선대위 고문에 강현욱·유종근 전 전북지사, 정균환 전 새천년민주당 원내총무, 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 장세환 전 국회의원, 라승룡 전 농촌진흥청장, 공동선대위원장에 이광철·채수찬·김광수·전정희·이상욱 전 국회의원, 총괄 선대본부장에 김명지 도의원 등이다.

김 후보는 “이제 그 어떤 가시밭길도 두렵지 않다”며 “오는 매머드급 선대위, 그리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정쟁레 지

도부의 오만을 심판하고, 도민 여러분의 마음을 보듬겠다. 멈추지 않는 전북을 향한 도약을 이제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어 전북 익산에 제2혁신 도시를 건설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2 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등 7개 부분의 익산 발전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은 전북의 관문이며, KTX 익산역과 원광대학교, 백제문화, 보석산업까지 전북 성장의 핵심 자산을 모두 가진 도시지만 시민들 마음속에는 깊은 아쉬움도 함께 자리잡고 있다”면서 “익산을 전북의 제2성장엔진으로 키워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김종희 “민주당 사당화 공천 맞서 지역 지킬 것”

군산김제부안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종희 후보는 14일 “김제·부안·군산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정치가 아니다”고 민주당 후보를 직격했다.

김 후보는 이날 후보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한 뒤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는 지역민의 뜻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공천은 지역민심보다 특정 정치인의 의중이 앞서는 ‘사당화 공천’으로 비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가 ‘사당화 공천’을 비판한 배경은 이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가 김제·부안·군산 출신이 아닌데다 특별한 연고가 없는 후보를 공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김종희는 말이 아니라 실적으로 검증된 사람”이라고 차별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0대 국회 농림축산



김종희 후보

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통해 쌀값 대책 인상을 관철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지역 예산을 크게 늘렸다”며 “불가능해 보였던 KTX 김제역 제정차, 김제육교 재가설 국비 확보 역시 현장을 알고 끝까지 밀어붙였기에 가능했다”고 소개했다.

또 “이번 선거는 단순한 보궐선거가 아니다”며 “정청래식 사당정치와 전략공천에 맞서 지역민심과 지역의 자존심을 지키는 선거이다. 검증된 일꾼 김종희가 김제·부안·군산의 미래를 다시 뒤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생명을 꽃피우는 가장 따뜻한 나눔”

헌혈 합시다!

전주시 '음식문화개선' 국무총리 표창 수상

'제25회 식품안전의 날' 음식문화개선 성과 인정

미식도시 전주시가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며 '제25회 식품안전의 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2개 기관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로써 가장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갖춘 도시 전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식품안전업소 확산 △식품안전업소 홍보 △자발적인 음식문화개선 참여 유도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 등 5개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미식도시 전주시가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며 '제25회 식품안전의 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전주시>

평가 이어졌다.

특히 시는 식품안전업소(음식점 위

생등급제)를 2020년 142개소에서 지난해 말 508개소로 약 257% 확대했다.

이 중 94%(478개소)가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시는 영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확대했다. 시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넘어, 누구나 불편 없이 전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국무총리 표창 수상은 전주시가 맛의 고장 전주를 넘어 위생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임을 입증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소방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1위'

화재·구조·구급 실전기술 전국 최강 입증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제39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번 종합우승은 '국내 최강 전북소방'으로 자리매김되며 그 의미가 남다르다.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필요한 실전 기술과 전문 기술을 겨루는 소방 분야 최고 권위의 경연대회다.

올해 대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충남 공주 중앙소방학교에서 전국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응급구조학과 학생 등 5천여명이 참가했다.

전북소방은 이번 대회에 소방공무원 35명, 의용소방대 등 일반인 15명 등 모두 50명의 선수단을 꾸려 12개 종목에 출전했다. 선수단은 화재진압, 응급구조전술, 구급전술, 화재조사, 최강소방관, 구급술기, 신속구조팀, 드론경진대회, 의용소방대, 대학 응급구조학과 경연 등 분야별 경연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했다.

종합 1위는 단일 종목의 우수성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다. 현장 대응의 기반이 되는 화재진압 전술부터 구조대원의 팀 단위 구조능력, 구급대원의 전문 처치능력,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역량까지 소방업무 전반의 균형 잡힌 실력이 요구된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번 성과가 단순한 대회 수상을 넘어 도민 안전으로 이어지는 현장 경쟁력의 확인이라고 설명했다. 평소 반복훈련을 통해 대원 개개인의 기술을 높이고, 팀 단위 전술훈련을 강화해 온 결과가 전국 최고 성적으로 나타났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정연구원 'JRI 이슈브리프 제23호' 발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역경제 소비 이어져

전주시정연구원은 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전주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량 분석한 'JRI 이슈브리프 제23호'를 발간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전주시 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주제로 한 이번 이슈브리프는 미·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고물가·고유가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가 국민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원금이 전주시에 배분되는 988억원

(51만 500명)의 경제적 효과를 추계한 것이다.

분석 결과 정부 지원금 988억원은 가중 한계소비성향(MPC 0.865)과 가장 지역 내 실질 소비로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주시 IO 테이블의 가중평균 생산유발계수(2.1064)에 적용한 결과 생산유발 1512억원(투입 대비 1.527배)과 부가가치 625억원, 피급자보수 361억원, 취업 1385명의 파급효과가 발생함 것으로 추계됐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숙박서비스(생산

유발 410억원, 취업 401명)와 도소매서비스(생산유발 318억원, 취업 304명)가 가장 큰 파급효과를 보였으며, 이 두 업종이 전체 취업유발의 50.8%를 견인한다.

특히 도소매·사업지원·보건·전문서비스 등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가 1.0을 초과해 직접 부가가치 외 타 산업연계 소득까지 유발하는 구조임이 확인됐다.

특히 연구원은 이번 지원금이 △주요 관할 지자체 내 사용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한정 △대형마트 및 온라인 불가 △8월 31일 사용기한 등 역대 소

비쿠폰 중 가장 강한 구조적 제약을 가진 점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원은 다른 현금 지급 시 역대 귀착률이 60~70% 수준에 머무는 데 비해, 이러한 제약으로 이번 지원금은 83~91%의 귀착률이 구조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중요한 차별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집중 사용 캠페인 등을 소비지원금과 연계해 현재 추계된 귀착률 85.3%를 넘어 90% 이상 달성 목표를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EU 도시 협력 프로젝트 1만 유로 경쟁기금 확보

세계 97개 도시 참여 총 2건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

전주시는 포르투갈·이탈리아 등 유럽 도시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관광을 주제로 추진한 협력과제가 유럽연합(이하 EU) 기금 공모에서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돼 착수기금 1만 유로(한화 약 1700만원)를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EU의 IURC(International Urban and Regional Cooperation)는 탄소중립·디지털 전환·관광·도시혁신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유럽과 비유럽 도시 간 정책교류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글로벌

협력 기구이다.

공모는 IURC 참여 도시의 프로젝트 추진 자금 지원을 위한 것으로, 협력의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과, 혁신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그 결과, 전 세계 97개 도시의 28개 프로젝트 중 전주시·포르투갈 코임브라(Coimbra)·이탈리아 프라토(Prato)가 공동 추진 중인 지속 가능한 관광 프로젝트 등 총 2건이 공모에 선정됐다.

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포르투갈 코임브라 등 유럽 협력 도시들과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도시 간 협력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체류형 관광

을 위한 도시별 정책을 공유 및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해외 도시와의 협력체계 확장 및 중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는 EU의 공모 기금을 활용해 오는 9월로 예정된 '2026 전주미래도시포럼'에서 △각 도시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전략 소개 △스마트관광 기술 접목사례 공유 △공공협력선언의 시간 등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지속적 관광정책 교류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성공적인 IURC 협력 프로

젝트 추진을 위해 오는 6월 각 도시가 참여하는 온라인 세미나 개최 및 국제회의(2026 싱가포르 세계시장포럼) 참여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질 방침이다.

윤동욱 전주 부시장은 "이번 경쟁기금 선정은 전주시가 국제도시 협력 분야에서 EU로부터 국제적 정책 역량과 협력체계를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외 우수도시와의 지속적인 정책교류와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전주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세계 최정상 브레이킹 '댄서' 전주에 모인다!

'제19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 개최

전주시가 국내외 브레이킹 댄서들의 실력을 보여주는 '제19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를 개최한다.

'제19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 댄서들의 경합은 오는 23일 오후 6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진행된다.

'전주비보이그랑프리'는 전주를 대표하는 비보이팀 라스트포원이 지난 2005년 독일에서 열린 '배틀 오브 더 이어(Battle of the Year)'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계기로 2007년 처음 시작된 국내 최정상 브레이킹 배틀 대회다.

총상금 규모는 1800만원이며 우승팀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제17회 대회에서 일본팀 '바다카니발'이 참가해 우승한 이후, 일본과 중국, 대만 등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유명 브레이킹 댄서들이 해마다 전주를 찾고 있다.

최근에는 뛰어난 실력을 갖춘 유스 세대 댄서들의 참가가 크게 늘며 브레이킹 씬의 세대교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회 심사위원으로는 △2023년 국제 댄스포츠연맹(WDSF) 아시아 브레이



킹 선수권대회 비결 부분 동메달리스트이자 전주 출신 국가대표 비결 전지예(FRESH BELLA) △대한민국 대표 브레이킹크루 퓨전앤서 단장 황정우(FLEX) △독창적인 브레이킹 스타일을 갖춘 이병준(MARIO) △레전드 파워머버 김연수(THE END) △엠비크루와 미국 스타일엘레먼트크루에서 활동한 박진형(DOL) 등 5명이 참여한다.

심사위원들은 각자의 배틀 스타일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흥미진진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배틀 결과가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

은다. 행사 진행은 전주비보이그랑프리 고경 MC로 활약해 온 JERRY(김근서)와 DU LOCK(정상현)이 맡고, 대한민국 브레이킹 배틀 DJ로 잘 알려진 WRECKXX(최재화)와 ZESTY(임석용)가 음악을 책임져 현장의 열기를 더한다.

행사 오프닝에서는 스페셜 게스트로 △유명 스트릿댄스팀 '한야(HANYA)' △청소년 왁댄스팀 '쏘왓(SO WHAT)'이 참여해 브레이킹 배틀과는 다른 색다른 매력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 '응급의료봉사자 역량강화 교육' 개최

'병원 전 응급분만' 대응 강화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지역 응급의료 체계의 핵심인 119구급대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고위험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응급의료봉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공공의료과 권역 모자의료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교육은 최근 분만 의료 인프라 감소로 인해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 출산이 이뤄지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병원 전 응급분만' 상황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전북소방본부 소속 구급대원 17명이 이번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은 이동현 교수가 주강사로 나서 실제 분만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해 응급분만 키트 활용법과 신생아 응급 처치 등 현장에서 즉각 적용 가능한 대응 기술을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정소민 기자

전북중기청 한옥마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홍보

다양한 업종 매출 증대 기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전주 한옥마을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4.22)됨에 따라 한옥마을 내 상점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전북중기청은 14일 전주 한옥마을 대표 상점인 '다우랑'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축하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전주 한옥마을은 800여개 점포가 밀집한 전북 대표 관광상권으로서 현재 350여개 상점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마친 상태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타 지역 관광객도 한옥마을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구매 할인 혜택을 통한 소비 유인 효과도 기대된다.

관련해 전북중기청은 관광객 결제 선택권 확대와 한옥마을 내 식음료·숙박·공예품 등 다양한 업종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북중기청은 상인회와 협력해 미가입 점포를 대상으로 현장 안내와 가입 지원을 이어가며, 온누리상품권 이용 기반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5월은 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전주시 성실 신고·납부 홍보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독려했다.

캠페인에는 신고·납부 기간과 신고 방법 등이 적극 안내됐다.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6월 1일까지이며 신고 방법은 홈택스·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또는 합동신고창구 방문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환경청 동진강변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약 1000㎡ 면적 내 양미역취 제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지역 내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고유종의 서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5월 14일 부안군 백산동 동진강 일대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인 양미역취 제거행사를 실시했다.

행사는 양미역취의 생장기인 5월을 맞아, 꽃이 피고 씨앗이 퍼지기 전 뿌리째 뽑아 퇴치 효과를 높이고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전북지방환경청, 부안군, 국립생태원 등 유관기관 30여명이 참석해 동진강변 일대 양미역취 군락지 약 1,000㎡에서 양미역취를 제거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TP, SW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 개최

디지털 신산업 분야 5개사 선정... 사업화 시장진출 지속 추진

(재)전북테크노파크·전북디지털융합센터·전북도는 14일 '2026년 전북 SW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해 신규 선정기업 5개사에 지정서를 수여했다.

2026년 전북SW강소기업(이하 'SW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아이티스테이션(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에드아이(엣지디바이스·가상모사 솔루션·데이터학습시스템) △㈜모노플로우(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한국에너지기술(엔지니어링 서

비스) △㈜메이저인웍스(AI 기반 도시 집수 예측·관제 플랫폼) 등 총 5개사다.

특히 선정기업들은 △생성형 AI △정보보호 △데이터 기반 플랫폼 △디지털 시뮬레이션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SW서비스 확산 가능성도 높게 평가 받았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번 신규 지정기업을 포함해 총 40개사의 SW강소기업 육성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전북테크노파크는 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기술사업화 및 시장진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40개사의 SW강소기



<사진=전북테크노파크>
업에 대상으로 패키지 지원 10개사와 연구개발(R&D) 지원 3개사를 선정해 기술개발부터 제품 상용화, 마케팅 및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SW강소기업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협, 벼 육묘·신기술 정기총회

영농지원 방안 논의

벼 육묘·신기술 전북협의회(협의 회장 김기수 조합장)가 협의회 소속 조합장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14일 개최했다.

김성훈 총괄본부장은 "벼 육묘 총회에는 △2025년 사업결산 보고 △202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신규회원가입(순창농협,남산농협,망성농협,삼기농협,성당농협,전주농협)등을 의결하고 공동육묘장 운영 활성화 및 드론모심기 보급 확대 등 영농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수 협의회장은 "벼 육묘는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작"이며, "벼 육묘 단계부터 경쟁력을 높여 농업인의 영농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총괄본부장은 "벼 육묘 기술은 안정적인 쌀 생산의 출발점으로, 신기술 보급은 농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며 "앞으로도 농민친심(農心天心) 운동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실익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전북농협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식재산센터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정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전북지식재산센터)는 '2026년 전북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정식'을 개최해 본격적인 지원에 앞장선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수출 실적이 있거나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3년간 지식재산 맞춤형 전략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워내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연간 최대 7천만원(3년간 총 21억원) 범위에서 특허·브랜드·디자인 등 지식재산 관련 종합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14개 사는 각 기업

의 보유 기술과 제품, 목표 시장 등을 고려해 △해외 권리화(출원·OA·등록) 지원 △특허·브랜드·디자인 전략 수립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맞춤형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식은 14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2024년 선정 글로벌 IP 스타기업 사례 발표 △지역 유관기관 지원사업 안내 △지식재산 특강 'AI시대 지식재산 확보 및 활용 전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식재산(IP) 종합 지원은 지식재산처와 전북도가 예산을 지원한다.

/김영태 기자

바이오진흥원, 혁신 창업기업 10개사 선정

제품화 및 디자인 개발 등 사업성 강화 지원 예정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특허역량 BI 지원사업 일환 '2026 도전! J-스타트업 창업콘테스트'를 개최해 도내 농생명·바이오 및 전북 주력산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 10개사를 14일 선정했다.

콘테스트는 성장 가능성과 혁신성을

갖춘 지역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기업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지속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 아래 전북대학교, ECO융합심유연구원, 전북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역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본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

된 20개사는 매출액 40% 증가, 고용창출 15% 증가, 투자유치 5개사 등의 성과를 거두며, 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주요 지원 분야는 제품화 및 디자인 개발, 기술 인증, 지식재산권 확보, 시제품 개선, 브랜드 경쟁력 강화 등으로 기업별 수요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분야별 전문가와의 1:1 멘토링을 통해 창업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진단

하고, 사업모델 고도화와 시장 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해 기업들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향후 투자유치 및 매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바이오진흥원은 지역 창업기업이 기술력과 시장성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도 및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전북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중기부, 수출·도약·소부장 기술혁신 R&D 지원

총 125개사 신규 선정 156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상만,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급변하는 해외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2026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하반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중

기부의 대표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이다.

중기부는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총 125개사를 신규 선정해 15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별 특성에 맞춰 지원 유형을 세분화했다.

최근 세계 각국이 첨단기술 확보 경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시장 대응이 빠른 중소기업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기술혁신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수출지향형' 사업은 수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하반기에는 총 60개 기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2년간 10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점프업 연계형' 사업은 중기부의 도약(Jump-Up) 프로 그램에 선정된 유망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반기 5개 기업을 선정하며, 기업당 최대 2년간 10억원을 지원해 견고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소부장' 사업은 국가 산업의 뿌리인 소부장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촉진

해 기술 자립과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특화로드맵 분야의 전략 품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하반기에 60개 기업을 선정해 최대 2년간 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공고의 세부 내용은 오늘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지만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의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면적 확대 이행을 지원해오고 있다.

앞서 2024년부터는 산란계 농가에 대해 시설개선 자금 2024~2026년 동안 약 1250억원(융자)을 별도로 지원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해 4월 말까지 기존 관행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2027년 9월 사육밀도 개선 이행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받았다.

관행사육 농가는 2025년 8월 718개에서 2026년 5월 현재 647개로 10% 감소했고 전체 농가(1685개)에서 기존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41%에서 38%까지 감소했다.

한편 관행사육 농가 652개 중 523개(81%)가 사육밀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으며 5월 현재 32개 농가가 시설개선 등을 통해 사육밀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소민 기자

농어촌공사 "농지전수조사, 임차농 보호장치 마련"

농지전수조사로 일부 농지 소유주가 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 임차농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은 농지전수조사가 예고됨에 따라 임차농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편리한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사는 제도개선을 통해 임

차농 보호장치를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에게 대체 농지를 우선 공급한다. 농지 소유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임차농이 기존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대체 임대농지로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지 소유주와 임차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공사는 농지 소유주가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에 방문하지 않아도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농지 위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사 농지은행이 운영하는 '농지 임대수탁사업'은 농지 소유자가 3년 이상 소유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나 상속 농지를 공사에 위탁하면, 공사가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실직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농지 소유자는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예외적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농지 소유주가 공사에 농지를 위탁하면 △수탁 기간 중 농지처분 면제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매년 안정적 임대료 수령 △농지 소유주가 농업인일 경우 위탁 시 임대수탁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사진=전주상공회의소>

전주상의 골프동호회 '지역사회나눔' 실천

전주상공회의소 골프동호회가 지역 어르신 6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봉사는 전주상공회의소 골프동호회 정기 라운딩마다 적립해온 '사랑의 버디 기금'을 통해 마련됐다.

앞서 전주상공회의소 골프동호회는 지난해 총 278만원을 모아 어르신 위한 식사 제공에 사용했다.

봉사에서 전주상공회의소 골프동호회는 후원금 전달과 배식 및 식사 보조 등을 진행하며 어르신들과 온정을 나눴다.

/정소민 기자

전주중산신협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 활동

성금 2백만원 전달

전주중산신협 라양노 이사장이 성금 200만원을 마련해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라 이사장은 지난 12일 가정위탁지원센터 정필현 센터장을 찾아가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온누리에 사랑' 캠페인은 신협 임직원들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직접 발굴해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

/김영태 기자

성금 200만원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47구에 전달됐다.

앞서 전주중산신협은 2018년부터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에 동참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역사회 13명에게 누적 성금 19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전주중산신협은 △지역아동센터 어부바멘토링 △장학금 지원 교육사업 △김장김치와 난방용품 나누기 △취약가정 집수리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중기중 전북본부, 공공조달 관련 애로사항 건의

전북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임승중 본부장은 14일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주요내용은 전북조달청의 공공조달 제도 설명과 함께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참여 위한 제도 개선 및 애로해소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북 중소기업계는 △중량제봉투 MAS제도 개선 △MAS계약 품목추가

사전심사 자료제출 간소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조합추천제도 적극 활용 △레미콘 MAS계약 계약단가 조정 △항토기업 보호를 위한 관급자재 구매체계 개선 △학교 졸업앨범 품목 MAS 활용 확대 등 도내 업종별 공공조달 관련 애로사항 6건을 건의했다.

한편 이번 정책간담회는 전주 백리향에서 30여명의 도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영태 기자

카네이션 실종된 스승의 날... 악성 민원에 위축

청탁금지법 여파... 교권 추락, 교사 절반 이상 사직 고민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사제시간의 정을 나누는 축하 분위기는 사라졌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카네이션 등 감사를 전하던 문화가 자취를 감춘 데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무력감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스승의 날 아침이면 카네이션 포장으로 분주했던 꽃집 풍경은 이제 옛말이 됐다. 전주 한 꽃집 사장은 "2016년 청탁금지법이 생겨 학생들에게 카네이션 선물을 받지 않으면서 판매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따라 교원은 원칙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 없으며,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이나 개인이 직접 작성한 손 편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학교 현장도 달라졌다. 익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개인적인 선물 대신 학교 예산으로 종이 카네이션을 만들어 서로 주고받으며, 스승의 날의 의미 정도만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 문을 닫는 곳도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스승의 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도내 학교는 중학교 3곳과 고등학교 2곳을 합쳐 총 5개교로 파악됐다.

일선 학교들은 카네이션 지참 금지로 사전에 안내하며 혹시 모를 민원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카네이션 실종보다 심각한 것은 교사들의 교권 추락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 7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사직을 고민한 교사는 55.5%에 달했다.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려는 결정적 요인 1위는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62.8%)'이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사에서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이 이직 사유 1위(28.9%)로 꼽혔다. 일상적인 생활지도뿐 아니라 현장체험 학습 등 외부 교육활동도 크게 위축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교사 1902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교사 응답자의 97.2%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99.7%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개인의 법적 책임이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 학생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조차 인솔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구조 탓에 교사들이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 장치 마련, 악성 민원 대응 체계 강화, 학교안전사고 면책 기준 신설 등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시스템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최성민 기자



왼쪽부터 김민지, 김태희 선수 <사진=익산시>

익산시청 육상팀, 전국대회서 메달 행진

금1·은2·동1, 활약 펼쳐 익산시청 육상팀이 전국 규모 육상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청 육상팀은 '제80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와 '제55회 전국중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오해원 선수는 여자 1500m 경기에 11일 11일부터 열린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익산시청 육상팀 소속이자 여자 해머던지기 국가대표 김태희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김민지 선수도 여자 창던지기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며 팀 상승세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린 '전국중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도 익산시청 선수들은 고른 활약을 펼쳤다. 김태희 선수는 여자 해머던지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했고, 김민지 선수는 여자 창던지기 은메달, 장영민 선수는 남자 해머던지기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수들이 부상 없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교육감 선거, 이남호·천호성 후보 등록 완료

이남호 "도덕성 검증" 천호성 "책임 교육" 강조



이남호 예비후보 천호성 예비후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남호, 천호성 후보가 14일 오전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남호 후보는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공약인 '학력신장 3.0' 실현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가칭 전북교육과정평가원을 설립해 기초학력 진단부터 진학 컨설팅까지 통합 지원하고, 권역별 명품 거점학교 10개를 육성해 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 교부금 의존에서 벗어나 외부 재원을 확보해 교육재정 5조 원 시대를 열고, 7대 권역별 맞춤형 교육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는 상대 후보를 겨냥해 상습 표절 논란과 단일화 과정의 자리

래로 나아갈지 과거의 낡은 교육에 머물지를 결정하는 선거로 규정했다. 또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육전문가로서 전북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북교육감 선거는 최근 유성동, 황호진 전 예비후보의 잇따른 단일화 합류로 캠프 간 세 불리기가 본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양 진영이 상대방을 향해 '밀실 야합'과 '자리 거래 의혹'을 강도 높게 제기하고, 전직 교육감의 불법 선거 개입 고발전까지 얽히면서 정책 대결 대신 네거티브 중심의 진흙탕 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천 후보는 이번 선거를 전북교육이 미

레로 나아갈지 과거의 낡은 교육에 머물지를 결정하는 선거로 규정했다. 또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육전문가로서 전북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북교육감 선거는 최근 유성동, 황호진 전 예비후보의 잇따른 단일화 합류로 캠프 간 세 불리기가 본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양 진영이 상대방을 향해 '밀실 야합'과 '자리 거래 의혹'을 강도 높게 제기하고, 전직 교육감의 불법 선거 개입 고발전까지 얽히면서 정책 대결 대신 네거티브 중심의 진흙탕 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천 후보는 이번 선거를 전북교육이 미

도문화관광재단, 청년 자율기획 소모임 모집

11개 팀에 최대 9백만 원 지원... 21일까지 접수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청년 자율기획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년 소모임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 및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접수 기간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21일 오후 5시 59분까지며, 재단 누리집에서

지원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국가 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 규모는 총 11개 소모임이며, 3인 이상으로 구성된 39세 이하 전북 지역 청년 소모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 출생자 △도내 학교 재학 또는 졸업자 △공공기관 기준 도내 거주자 △도내 활동 실적 증명 가능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지원 유형은 '예술실용'과 '예비창업' 두 가지로 구분된다. 선정된 소모임에는 프로젝트 운영비를 팀당 2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가

지 차등 지원하며, 전문가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등 후속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3개 유형을 2개 유형으로 통합하고, 소모임 구성 인원 기준을 2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를 통해 청년 주도의 협업 기반을 확대하고,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청년들이 지역과 사회를 이해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이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시도가 지역 사회에 활력을 더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청년이 지역 문화 활동의 주체로 성장하고, 지역 기반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은 자율기획 소모임 프로젝트 지원과 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jbct.or.kr) 또는 교육문화팀(063-230-74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전북현대, 17일 김천 상무 상대 '승점 사냥'

전북현대모터스FC가 오는 17일 전주 현대 6승 5무 3패로 선두권과 승점 6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 2026' 15라운드에서 김천 상무를 상대로 승점 사냥에 나서게 된다. K리그 최초 경기 후 공연 콘서트로 'The 3rd Half with 잔네' 시도 그리고 써드 유니폼 공개로 축구 그 이상의 축제를 준비한다. 전북현대는 지난 광주와의 홈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며 라운드 베스트팀에 선정됐지만 최근 안양과 부천으로 이어진 원정 2연전에서 잇따라 무승부를 기록하며 추종했던 흐름을 이번 안양 경기에서 다시 반전시키겠다는 각오다. 현재 6승 5무 3패로 선두권과 승점 6점을 유지 중인 전북은 역대 상대 전적에서 11전 3승 4무 4패로 근소하게 뒤져 있는 김천을 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거둬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현대는 이번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과 함께 상위권 도약을 위한 승점 3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목표. 이날 전북현대 선수단은 최근 공개된 '블랙 앤 골드' 콘셉트의 'BLACK LABEL' 써드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다. /장정철 기자

군산시, 지역 예술가 활동 무대 확대

(재)군산문화관광재단은 군산시 관내 곳곳을 직접 찾아가 공연을 선보이는 '2026 군산문화배달' 사업에 참여할 지역 예술가와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6 군산문화배달'은 지리적·환경적 여건으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장소를 찾아가 공연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군산에 기반을 둔 음악, 무용 등 공연예술 전 분야의 전문 예술가 및 단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가 및 단체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재단 사무국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신청 서식은 군산문화관광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임근석 기자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사용가능한 수동식 심폐소생기

안전에 일상을 더하다

정읍시, 농산물 가공 장비 3종 신규 도입... 상품 다양화 기대

정읍시는 지역 농산물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최근 농산물가공센터에 착유기와 열풍 세척기, 습식 분쇄기 등 신규 가공 장비 3종 도입을 확정하고 다채로운 제품 생산 기반을 다진다.

이번 장비 도입으로 기존 분말, 음료, 잼, 과자 중심의 가공 품목에서 벗어나 참기름과 들기름 등 유지류를 비롯해 양념과 반죽 형태 제품 등 다양한 가공품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착유기 도입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유지류 생산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아울러 습식 분쇄기를 활용해 양념과 반죽 형태 제품 개발도 가능해져 가공 제품의 품목 확대와 상품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이달부터 내달까지 신규 장비 시험가동과 함께 공정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에는 참기름과 들기름 등 유지류 생산과 판매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장비 사용 교육과 유통 전문 판매업 등록, 판매 절차 교육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원식 농촌지원과장은 "신규 장비 도입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채로운 가공 제품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가공 창업과 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농산물 부가가치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해경, 무면허 운항 70대 적발... "시운전도 명백한 위법"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선박 조종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선박수리업자인 A씨는 지난 13일 충남 서천군 정항항에서 군산시 해방동 내항 인근 해상까지 수리 선박의 시운전을 위해 총톤수 7.93톤급 여선을 운항하면서, 해당 선박 운항에 필요한 해기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여선을 운항할 수 있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해경은 단순 시운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라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면허 없이 선박을 조종하는 행위는 해양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항·포구 주변 해역은 어선, 작업선, 레저선박 등이 수시로 통항하는 곳으로 무자격 운항은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장남 군산해경 경비계장은 "선박 수리나 단순 시운전, 짧은 거리 이동이라 하더라도 면허 없는 무자격자가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는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군산해경은 항·포구 주변 해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자격 운항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원근석 기자

정읍시, 오는 27일까지 단풍미인소핑몰 입점 업체 모집

정읍시는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를 넓히고자 오는 27일까지 정읍시 대표 온라인 판매처인 '단풍미인소핑몰' 신규 입점 업체를 모집한다.

단풍미인소핑몰은 지역 생산자와 업체의 안정적인 온라인 유통 기반 구축을 돕고 있다. 이번 신규 입점 업체 모집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 농특산물과 가공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개인 또는 단체다.

신청은 시 농수산유통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된 업체는 온라인 판매와 다채로운 홍보 판촉(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시는 단풍미인소핑몰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이끄는 다양한 혜택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소비 증가에 맞춰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며 "온라인 판매에 관심 있는 판매 생산자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군산, 농업 환경 개선 2(題)

익산시, 농작업 안전 사업 추진

익산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국·도비 포함 총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농작업 안전 관련 5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사업 △농작업 안전 생력화 시범농가 육성사업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구성됐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은 상추 재배 작목반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과 교육, 안전장비 지원 등을 통해 농작업 위험요소를 줄이는데 중점을 둔다.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사업'은 안전장비 보급과 태양광 바닥조명 설치 등을

통해 마을 주변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농작업 안전 생력화 시범농가 육성사업'은 3개 농가를 대상으로 작업 편의장비와 안전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 일환으로 선도 농업인 8명을 선발·교육해 온열질환 예방요원을 운영한다. 시는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상추 재배 작목반을 대상으로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 마을을 선정해 총 10회에 걸친 안전교육도 운영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작업 안전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확대

군산시가 기후 위기에 따른 불확실한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현장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올해는 특히 최근 2년간 발생한 이상고온과 집중호우로 인한 벼멸구, 개시무늬병 등의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총 사업비 41억 5,500만 원(시비 100%)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약제 지원을 넘어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농협과 긴밀히 협력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원되는 모든 약제는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된 친환경 제품으로만 구성된다. 이는 병해충의 내성 형성을 방지하고 전적 보호와 토양

오염 예방 등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달 중 모든 행정 준비를 마친 뒤, 내달 약제공급을 거쳐 병해충 발생 집중기인 7~8월에 지역농협을 통한 드론 및 광역방제기를 활용 '대대적 공동방제'를 전개할 계획이다.

박우우 먹거리정책과장은 "친환경 약제의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 내 전 지역이 일제히 방제에 나서는 '적기·동시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개별적으로 방제하는 농가에서도 반드시 지역농협의 공동방제 시기에 발맞춰 함께 방제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8일부터 1인당 15만원

익산시가 시민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본격 나선다.

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우선 지급에 이어,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익산시는 약 18만 5,4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비수도권인 익산의 경우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익산

다리로움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연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다리로움의 경우 앱을 통한 편리한 신청이 가능해 많은 시민의 이용이 예상된다.

또 다리로움으로 지급받을 경우 정책지원기행점 이용 시 월 최대 2만 원 한도로 10%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정책지원기행점은 청년물, 착한가격업소, 지역서점, 치킨로드 등 82개소다.

익산시 관계자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골목 상권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2차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역전지구대 이전' 국비 지원 건의

기재부 찾아 예산 반영 요청

정읍시는 지난 13일 백운기 총무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정읍 역전지구대 이전 건립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신속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역전지구대 이전의 필요성과 함께 현재 건물을 정읍시 홍보관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정읍역 인근에 자리한 현 건물이 정읍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광 자원을 알릴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운기 총무과장은 "역전지구대 이전은 시민 편의 증진과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기존 건물을 활용한 정읍시 홍보관 조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머물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정읍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읍 역전지구대 이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자 중앙부처와 면밀하게 소통하고 적절한 대응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착수

민간 의견수렴... 실효성 있는 중장기 정책 마련

익산시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끌 중장기 지역복지 정책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14일 익산시청소년수련관에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용

역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복지 환경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6기 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익산시의 지역복지 비전과 추진 전략을 담은 중장기 로드맵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익산시는 계획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지역 내 1,023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 결과를 핵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 자원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시민 생활 전반의 보장체계를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 과제를 도출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시민의 차별화된 복지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최적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재준 군산시장 후보, 본 후보 등록

"넓은 정치 문화 타파... 시민 위한 행정 펼치겠다"

김 후보는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소감을 통해 "지지율 38%로 시작해 민주당 후보가 된 것은 변화를 열망하는 군산 시민의 승리"라며, "기득권에 빚지지 않은 자유로운 신분으로서 군산의 넓은 정치 문화를 타파하고 오직 시민만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자신의 핵심 경쟁력으로 국회와 청와대에서 쌓은 풍부한 국정경험과 탄탄한 중앙 인적 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원내대표·당대표 보좌관을 비롯해 국회의장 공보수석, 청와대 춘추관장 등을 역임하며 실무 역량을 키워온 '중앙무대 베테랑'임을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는 "군산 촌놈 김재준이 혈혈단신 중앙무대에서 키워온 정치 근육을 이제 군산의 미래를 위해 쓰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세만

급 현대차 9호 월 투자가 말뿐인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 원팀의 힘으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후보는 군산의 도약과 시민의 삶을 책임질 5대 핵심 비전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에도 박차를 가했다.

우선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새내금을 중심으로 RE100 기반의 신재생에너지·AI 첨단산업 도시를 구축해 우량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또한 △체류형 관광도시로 탈바꿈시켜 지역 상권과 시민 소득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주혁명' 비전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청년 일자리와 보육·주거·의료·교육을 촘촘히 연결해 사람이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생활체육·복지·교통 등 시민 일상의 불편을 세심하게 해결해 품격 있는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직접 감시하는



<사진=김재준 선거 캠프>

투명한 '유리벽 청렴행정'을 도입해 깨끗하고 유능한 시장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하며, 공직 사회의 신뢰 회복을 다짐했다.

김 후보는 끝으로 "군산에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길 김재준의 도전에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미래교통의 중심 도시로"

정현울 시장 익산역 현장행영

익산시가 자율주행과 광역환승체계를 아우르는 미래교통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주요 사업에 대한 집중 현장 행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4일 익산역 일원을 찾아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KTX 익산역 시설개선사업 △자율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행정은 미래교통 분야 핵심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현울 시장은 익산역복합환승센터와 KTX 익산역 시설개선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익산역복합환승센터 사업은 국토교

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복합환승센터 혁신모델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본격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국토연구원 등이 수행한 상반기 컨설팅에서는 철도와 고속·시외버스, 택시, 도시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환승체계 구축 방안과 함께 주거·업무·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 모델이 종합 검토됐다.

이러 정 시장은 오는 7월 시범운행을 앞둔 자율주행버스의 안전성과 시스템 운영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을 주문했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익산역이 단순한 철도역을 넘어 미래교통과 지역성장을 이끄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총력'

본격 대응 체계 가동

정읍시가 지난 13일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회의를 열고, 472개 취약지역 관리 방안을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재난 대응 체계 가동에 나섰다.

유호연 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 부서장들을 소집해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기후 변화로 심각해진 국지성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부서별 협업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기상 특보가 발령될 경우 즉각 가동할 비상근무 체계를 세밀하게 점검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기상 특보별 비상근무 체계 확

립 △인명피해 우려 지역 및 산사태 취약지역 등 472개소 관리 방안 △부서별 재난 대비 대책 △폭염 대비 저감 시설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됐다.

대책회의가 끝난 직후 유 권한대행은 정읍시 재난대응지원센터에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에 도착한 유 권한대행은 비상연락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경로를 꼼꼼히 살폈다. 유 권한대행은 "자연재난 대응의 핵심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게 막는 것"이라며 "철저한 사전 점검과 빠른 상황 전파 체계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모든 행정력을 쏟겠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체류형 관광 전략 본격화

전문가 초청 팸투어 성료

정읍시가 관광 기반 시설 구축과 지역관광자원의 콘텐츠화를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도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노미경 여행 작가와 드라마 작가 이금림 씨를 비롯한 드라마 제작자, 영화평론가 등 콘텐츠 분야 전문가 초청 사전 답사여행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내장산국립공원과 신성공

소 용산호, 정읍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1894 달하루', 김명관 고택, 무성서원 등을 둘러보며 정읍의 자연과 역사, 음식과 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이번 팸투어는 일반 관광 홍보와는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단순 방문이나 소비 중심 관광이 아니라 콘텐츠 생산자들이 지역의 공간과 이야기 구조를 직접 체험하며 '정읍다운 콘텐츠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관광 흐름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짧게 둘러보는 관광보다 지역의 분위기와 이야기를 천천히 경험하는 체류형·감성형 관광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정읍의 자연·역사·생활문화 자원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이번 전문가 초청 답사가 정읍의 이야기를 드라마와 영화·출판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유가 지원금 지급 시작

○·부안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한 결과 지난 8일까지 대상자의 92%인 4,489명에게 지급했으며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약 1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2차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군민이며, 1인당 26만 원씩 지급된다.

특히 군은 신청 초기 창구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첫 주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사용되는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제한되지만, 전체 주유소 및 충전소에서는 예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 자정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은 "1차 지급이 군민들의 협조 속에 순조롭게 마무리된 만큼, 2차 지급 또한 신속하고 불편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2차 지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현서 김제시장 권한 대행을 단장으로 한 7개 부서·19개 읍면동 전담 TF팀을 구성해 예산 편성부터 지급수단 확보, 시스템 관리, 홍보·민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2차 피해지원금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 가구는 2026년 3월 3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로 묶어 구성한다.

지원금은 가구원들이 올해 3월에 부담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원 수 및 유형별 기준액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이 권한 대행은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위축된 지역 소비를 진작시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이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계획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지급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 선정은 2026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1차 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자도 2차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다.

고창군은 약3만8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성인은 개별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표 신청하며,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고창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군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 행복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 부군수는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종합

고창군, 부산 동래구와 청소년 교류 나서

농어촌 청소년 성장 네트워크 지원 사업 공모 선정

고창군이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사장 박성자)이 주관하는 '2026 농어촌 청소년 성장 네트워크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부산 동래구와 함께 청소년 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교류에 나선다.

'고창군-동래구 청소년 마음있기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고창군과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의 업무협약의 첫 결실이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농어촌과 도시 청소년들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고창군 4개 기관과 부산 동래구청소년센터가 연합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총 1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9월중 2박 3일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주요 프로그램은, 양 지역 청소년위원회(40명) 및 지도자(10명)간의 소통 활동, 부산지역 역사문화 명소 탐방, 지역간 경계를 허무는 공동 미션 및 교류활동 등으로 구성돼 청소년들의 사회성과 문화적 식견을 넓힐 예정이다.

고창군은 오는 27일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9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는 방침이다.

김미란 고창군 인재양성과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고창의 청소년들이 도시 청소년들과 교류하며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금주구역 2곳 추가 지정

10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부안군은 군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2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금주구역은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어린이 생태놀이터와 해돋마루 자연마당 어린이놀이터 총 2개소다.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8일 금주구역 지정 고시를 시행했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군민 인식 확신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제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안=온봉기 기자

금주구역 내에서는 음주행위가 제한되며, 제도기간 동안에는 현장 안내와 홍보 중심의 제도 활동이 이뤄진다.

이후 10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금주구역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내표지판 설치를 비롯해 현수막 게시,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공장소 내 음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어린이와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전한 금주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시, 직업계고와 취업 협력망 구축

일자리센터 및 학교 간 채용 활성화 업무협약

김제시는 14일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일자리센터·농생명마이스터고·덕암정보고 간 '김제시 직업계고 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을 비롯한 각 학교 교장 및 취업부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지역 인재 육성과 고용 활성화에

대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지역 기업의 인력 수요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관내 기업의 채용 수요를 발굴해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는 학생들의 전공과 역량에 맞는 구직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취업 상담, 자기소개서 컨설팅, 모의면접, 우수기업 탐방 등 실질

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업 이후에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에 적응하고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강기수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이번 협약은 일자리 기관과 학교, 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이 김제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미니수박 출하 시작

1인 가구 비율 증가... 고소득 작목 자리매김

고창군이 변화하는 농산물 소비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미니수박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이 미니수박 출하 현장을 찾아 고창미니수박연합회(회장 강대성)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선 미니수박 생산 현황과 유통 확대 방안, 농가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고창군 성내면 김진열 농가 포장에서 숙이 노란 미니수박 품종인 '블랙망고수박' 첫 수확이

진행됐다. 이날 수확된 미니수박은 전국 이마트 매장으로 납품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고창군 미니수박 생산은 고창미니수박연합회(회장 강대성)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연합회 소속 100여 농가가 블랙망고수박을 비롯해 블랙보스수박, 애플수박 등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약 90ha에 달한다. 이는 2025년 기준 전국 미니수박 재배면적의 약 15% 수준으로 추정되며 전국 최대 규모다. 올해 생산된 미니수박은 고창황도배기유통과 도매시장, 대형마트 등을 통해 본격 출하될 예정이다.

미니수박은 일반 수박보다 크기가 작아 보관과 섭취가 편리하고, 다양한 색

과 형태를 갖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또한 일반 수박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비율이 36.1%(2024년 인구총조사 기준)를 넘어서는 등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소형 과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미니수박에 대한 유통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 부군수는 "고창 미니수박이 소비자 기호 변화에 맞춘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고창 농산물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품질 고급화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사진=고창군>

고창군, 행락철 대비 교통안전 캠페인

고창군이 지난 13일 행락철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운전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수칙 준수를 안내했다.

캠페인은 고창읍 주요 교차로에서 진행됐고, 고창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횡단보도 일단멈춤 △과속 및 음주운전 금지 △안전거리 확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보행자 우선 배려 △졸음운전 예방 등 교통안전 수칙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

며 안전운전 실천을 당부했다.

고창군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 정비와 선운사C 사거리 인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이희경 도시디자인과 과장은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즐거운 봄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변산마실길 현장 점검

샤스타테이지 개화... "관광객 편의·안전 최선"

부안군은 변산마실길 주요 구간에 조성된 샤스타테이지 개화 시기에 맞춰 관광객 편의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전략회의 및 샤스타테이지 군락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회의는 14일 변산해수욕장 위케이션센터에서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샤스타테이지 개화 현황

과 관광객 방문 대비 주요 현안 사항, 안전관리 대책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회의 이후 변산마실길 주요 구간을 직접 방문해 코스별 개화율과 현장 관리 상황,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며 현장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변산마실길 샤스타테이지 군락지는 1코스 새만금간척박물관 일원, 2코스 변산해수욕장 송포항 인근, 4코스 연포 해변, 5코스 도청리 쉼터 및 상그릴라 인근 등에 조성돼 있으며 매년 봄철 관광객과 사진 촬영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대표 경관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군은 샤스타테이지 개화 시기 동안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관리와 환경정비를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화영 권한대행은 "변산마실길 샤스타테이지는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봄의 추억을 선사하는 대표 관광자원"이라며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변산마실길을 즐길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관광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 벽골제 생태농경원 일원 유채꽃 만개... 나들이 명소 '주목'

김제시는 벽골제 생태농경원 신털미산 일원에 유채꽃이 만개하며 봄철 나들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채꽃이 만발한 곳은 생태농경원 내 신털미산 데크산책로 일원이다. 이곳은 원평천의 풍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구간으로 노란 유채꽃과 데크길이 어우러져 방문객들에게 봄의 정취를 선사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산책로 내에 있는 6,000㎡ 유채부지를 정비하고 유채꽃 씨앗을 파종하는 등 봄철 관광객들을 위한 경관 조성을 위해 힘써왔으며, 최근에는 노을 무렵 데크길을 따라 걷는 산책 명소로 입소문 나며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벽골제 생태농경원은 유채꽃밭 이외에도 수생생물의 서식처로 지난해 조성된 생태둠벙을 비롯해, 아늑한 휴식 공간인 펜나무 언덕, 야생화 군락지 등 다양한 생태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봄철 가족 나들이와 산책은 물론, 일상 속 힐을 즐기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중식 환경과장은 "신털미산의 노란 유채꽃과 생태 둠벙, 제방길이 어우러지며 벽골제 생태농경원이 봄철 자연 쉼터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번 주말, 가족, 연인과 함께 방문해 김제의 아름다운 생태 경관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 농업기술센터, 영농철 일손 부족 농가 찾아 봉사활동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영) 직원 20여명은 14일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안면 유천리의 여성농업인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일손돕기는 영농철을 맞아 일시적으로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가를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농촌 봉사활동을 통해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직원들은 고추 비닐터널의 환기용 구멍을 뚫는 작업에 참여해 고추의 생육 환경 개선과 병해 예방을 위한 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해당 농가에서는 "고추 재배 시기에 환기 작업은 꼭 필요하지만 많은 인력이 필요한 작업인데,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도와줘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기에 농촌 일손돕기를 추진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 제25회 식품안전의 날 맞아 식중독 예방 홍보

김제시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제25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식품안전 의식을 높이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본격적인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대비해 마련됐으며,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김제시장과 관내 학교,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보건소는 식중독 예방수칙 홍보물 배부와 현장 교육을 통해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위생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조리기구 구분 사용하기 △식재료 및 조리식품 냉장보관 준수 등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이다.

특히, 전통시장 이용 시민과 음식점 영업주,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식재료 보관 관리와 개인위생 실천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며 식품 취급 단계별 위생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 모두가 올바른 식품 위생수칙을 생활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순창 금평지구 85억 투입 하수도 본격화

마을하수도 설치 본격 추진 구립면 3개 마을 생활환경 개선 하수처리장·배수설비 구축

순창군이 구립면 금평리 일원의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금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이어졌던 구립면 금평·산내·안심 등 3개 마을의 생활하수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올해 5월 실시할 계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사업비 85억 3,000만 원이 투입되며, 주요 사업 내용은 △1일 처리용량 65톤 규모의 하수처리장 신설 △하수관로 4.48km 정비 △159가구 배수설비 설치 등이다.

군은 올해 안에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2027년 3분기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전용 하수관로를 통해 처



<사진=순창군>

리장으로 유입돼 정화 처리 후 방류된다.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개별 정화조에 의존해 생활하수를 처리해 왔으나, 노후화와 관리 불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주거 쾌적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로

인근 하천 수질 개선은 물론, 지역 생태계 보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금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수역 수질 보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사업"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와 공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

18일부터 소득하위 70% 신청 1인당 20만원 지급 예정

남원시는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16일부터 네이버, 카카오, 국민비서 홈페이지(www.ips.go.kr) 등의 국민비서 알람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2차 신청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시민에게는 1인당 인구 감소 우대 지역 지원금을 포함하여 2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첫 일주일(18~22일)간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별 신청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는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신청은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역화폐(남원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24시간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제휴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및 장애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8월 말까지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및 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지역상품권 chak'으로 받은 경우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고, 지원금을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콜(110), 시 민원콜센터(120), 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조직(063-620-6344)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군, 청년 취업·진로 설정 돕는다

'청년미래설계학교' 참여자 모집 자기이해·퍼스널브랜딩 교육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가 취업과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단계별 성장 지원 프로그램인 '완주청년 미래 설계 학교'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했으며, 모든 과정은 참여형 교육과 실습 중심으로 운영한다.

'완주 청년 미래 설계 학교'는 총 2개 과정으로 나뉜다. 1단계 '라이프 코스'에서는 실패 중심 사고 점검, 자존감 회복, 자기 해석 및 인식 패턴 훈련 등 자기 이해 중심 교육과 집단 프로그램, 소그룹 토론, 자기 성장 활동을 진행한다. 이어 2단계 '퍼스널 브랜딩 실전 코스'에서는 강점 경험 통합 정리, 자기소

개시 및 포트폴리오 실습, 차별화된 자기 메시지 구성 등 실천형 교육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1대1 코칭, 발표 실습, 모의 면접 및 설명회(IR) 피칭 등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완주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취업 및 진로를 준비 중인 청년을 우선 선발하며, 모집인원은 과정별 15명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최형욱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장은 "청년들이 스스로의 강점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삶의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성장과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는 지역 브랜딩 사업 등 청년의 창업과 성장을



<사진=완주군>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청년 거점 공간 운영을 통해 취업과 창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등 청년 지원 기반을 다지는 데 노력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임차택시 도입...교통약자 이동 지원 확대

콜택시 운영 중...임차택시 신규 이동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추진

완주군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더욱 효율적인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재위탁하고 임차택시(택시 활용 특별교통 수단) 도입을 추진한다.

군은 현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 수단) 15대를 운영하며 이용자 등록, 배차 및 상담 등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군은 최근 모집공고를 통해 민간위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수탁기관으로 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장애인협회 완주군지회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장애인협회 완주군지회에 재위탁한다. 이번 재위탁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완주군은 이용 수요 증가에 발

맞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2026년 하반기 중 임차택시 2대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임차택시는 택시를 활용한 특별교통 수단으로 기존 장애인 콜택시와 함께 운영된다. 이용자의 대기시간 단축과 운행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자빈 도로교통과장은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과 서비스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위기가구 먹거리 지원 '그냥드림' 운영

생필품·먹거리 꾸러미 제공 매주 화목...이용절차 간소화

남원시는 지난 7일부터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식품물가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긴급 생필품 지원사업 '그냥드림'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냥드림'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당장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이웃들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도움받을 수 있으며, 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 기초푸드뱅크(남원시 요천로 1531)에 마련된 전용 공간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생활고를 겪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방문하여

준비된 생필품과 먹거리 꾸러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지원 규모는 30가구이며, 이용 절차도 간소화했다. 첫 방문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즉시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후 2회차와 3회차 방문 시에는 복지 상담 진행 후 그냥드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또는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 긴급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 등 공격 복지서비스나 민간 지원을 추가로 연계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그냥드림 사업이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아너스클럽, 적성면 도서관 400만원 상당 물품 기증

순창아너스클럽은 지난 13일 적성면 소재 작은도서관에 책상과 사물함 등 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운영을 시작한 순창군 적성면 작은도서관은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문화생활 증진과 지식정보 제공 등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기증은 학습 공간 부족으로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지역 학생들에게 방과 후에도 편안하게 마음껏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물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정만 순창아너스클럽 회장은 "작은도서관이 아이들의 학습공간으로써 꿈을 키우고 지역 주민의 사랑방으로 더욱 활성화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순창아너스클럽은 이외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와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식품안전의 날 맞아 삼례시장서 식중독 예방 캠페인

완주군은 지난 13일 '제25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삼례시장 일원에서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오는 21일까지를 식품 안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번 캠페인은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하절기 식중독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이 참여해 군민과 영업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군은 캠페인 현장에서 식중독 예방 3대 수칙 △손 씻기△악취 먹기△끓여 먹기 및 올바른 식재료 관리법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하며 실천을 독려했다.

특히 홍보 주간 동안 일상 속 개인위생 준수 사항을 집중안내하며 자발적인 식품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강신영 환경위생과장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빈틈없는 위생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식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 지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어린이 흡연·음주 예방 참여형 뮤지컬 공연 개최

순창군은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14일 군민예술회관에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흡연·음주 예방 캐릭터 뮤지컬 공연 '빠빠빠 우리 VS 행복마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성장기 아동들에게 흡연과 음주의 위험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에서는 흡연과 음주가 우리 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했으며, 건강한 생활습관의 중요성과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함께 소개했다.

또한 단순한 관람형 교육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이 직접 공연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순창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어린 시기에 형성된 건강 습관은 평생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동 대상 건강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공연이 아이들이 흡연과 음주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공공급식센터, 취약농가 농산물 순회 수거

고령·장애농 이동권 보장 나서 로컬마켓 연계 안정 판로 지원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가 고령·장애·여성 농가 등 직접 출하 수단이 없는 취약 농가를 위해 직접 찾아가 농산물을 대신 거둬간다.

센터는 로컬푸드 출하 농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소외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돕고자 '2026년 농촌형 교통 모델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상생 행정에 나선다.

연말까지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 총 1,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센터는 농산물의 신선도를 확보하고 품목을 다양하게 갖추고자 센터 소유의 1톤 탱커를 활용해 주 7회 상

시 운행 체계를 구축했다.

운행 노선은 지역별로 세분화해 수거 효율을 높였다. 월요일에는 고산·운주·경천 지역을 순회하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비봉·화산·봉동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문해 농산물을 수거한다.

농산물은 전북 삼라로컬마켓 혁신점 등으로 신속하게 배송해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한다.

정명식 센터장은 "소외된 농가들의 정성을 시장으로 연결하는 '희망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령농과 소농들이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립도서관, 어린이 복합문화공연 연다

23일 개최 융합형 뮤지컬 인형극 이야기 기반 독서교육 프로그램

순창군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연을 오는 23일 순창군립도서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뮤지컬 인형극과 매직별문쇼, 레이저쇼를 결합한 융합형 공연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공연은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순창군립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진행된다.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네이티브를 통한 사전 접수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650-5682) 또는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의 주요 프로그램인 어린이 뮤지컬 인형극 '곰피와 왕궁뚱뚱'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이야기 기



<사진=순창군>

반 독서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작품은 동화적 서사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어린이들이 이야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등장인물의 감정과 상황에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책 읽기의 즐거움과 독서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직별문쇼와 레이저쇼를 함께 선보여 공연의 몰입도를 높이고, 다채로운 시각적 체험 요소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문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사회복지관-수지면, 노인돌봄 협력 강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협약 체결

수지면행정복지센터(면장 소명호)는 14일 남원사회복지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활성화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협력 △지역 내 복지 지원 연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기타 상호 협의를 통한 협력사업 추진 등을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명호 수지면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해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지면에서는 현재 총 90명(일반이용자 79명, 중점이용자 11명)의 어르신이 전담생활지원사 7명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남원=김종원 기자



장수군, 학교4-H회 대상 텃밭가꾸기 활동 지원

장수군은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장수중학교 등 관내 6개 학교4-H회를 대상으로 묘종과 퇴비, 복합비료 등 텃밭가꾸기 과제활동 재료를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학생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며 농업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학생들은 학교 내 텃밭에서 작물 심기와 물주기, 잡초 제거 등 재배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농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또한 텃밭 활동은 학생들의 정서 안정과 협동심 함양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래 친구들과 함께 작물을 가꾸는 과정을 통해 배려와 소통, 공동체 정신을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임실군은 지난 2일 행복나눔센터에서 대한적십자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의 지원을 받아 재해구호 담당공무원 14명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들이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재해구호법' 제16조의3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협조를 받아 이병희 전문강사의 진행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총 7시간동안 체계적으로 운영됐다.

주요내용은 국가재난 관리체계 이해, 재난유형과 구호활동 체계, 재난구호 조직 및 역할, 재난현장에서의 지원봉사, 재난 및 위기관리 리더십 등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담당자들의 실질적인 업무 이해도를 높였다.

임실군은 교육을 통해 재난구호 조직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하여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통합돌봄사업 '방문운동지도 서비스' 개시

진안군은 지난 13일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방문운동지도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기관 5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전북 군 단위 최초로 '방문운동지도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점이다.

진안군은 (사)전북특별자치도 물리치료사회와 협약을 맺고, 물리치료사가 직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신체 기능 상태를 확인한 뒤 개인별 맞춤형 생활운동을 지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근력 저하 및 낙상 위험이 높은 어르신이나 자택에서 전문적인 운동 지도를 받을 수 있어 높은 효용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재가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방문목욕 서비스'도 추진한다. 지난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기관 4개소를 선정했고, 방문목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인 △구세의원 △송외과의원 △용담한의원 △마령가정의학과의원과 방문의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서면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적절한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 진구사지 '보물 3관왕' 달성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 국가문화유산 보물 지정 예고

임실군의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이 다시 한번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새롭게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30일, 임실군 신평면 진구사지에 있는 '임실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任實 珍丘寺址 鐵造如來坐像)'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정 예고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철조여래좌상'은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 불상 양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록 오랜 세월속에서 일부 신체가 결실됐지만 남아있는 조형미만으로도 당시 불교 조각 예술의 높은 수준과 장인의 뛰어난 조형 감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진구사는 7세기경 고구려계 보덕화상의 제자인 적멸(寂滅)과 의용(義融)이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이다. 이번 철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 <사진=임실군>

조여래좌상의 보물 지정 예고를 통해 진구사지가 지닌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가 다시 한번 조명받게 됐다.

특히, 진구사지에는 이미 1963년 '진구사지 석등'이 보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올해 2월에는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보물로 지정됐다.

여기에 이번 철조여래좌상까지 최종 보물로 지정될 경우, 진구사지 관련 유물만 총 3건의 보물을 보유하게 되며 명실상부한 문화유산의 보고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소득 하위 70% 25만원 지원 국민서비스 서비스 통해 지원대상 여부 확인 가능

장수군은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지난 4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지원에 이어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수군의 지원금 규모는 1인당 25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2026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군민들은 국민서비스 '구뵈'의 사전 알림 서비스를 통해 지급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알림을 신청한 군민은 오는 16일부터 카카오톡과 네이버, 토스 등 자신이 선택한 앱을 통해 지급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을 안내받게 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약 7주간 운영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이번 성과는 중기(주지 다현스님)와 임실군이 오랜기간 귀중한 성보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쏟아온 정성어린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군은 지난 2023년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을 통해 철조여래좌상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전용 법당을 건립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왔다.

특히, 철조 불상의 특성상 상시 부식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보존 환경 개선에 집중하며 국가지정문화유산에 걸맞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써왔다.

심 민 임실군수는 "진구사지와 관련된 문화유산 3건이 연달아 보물로 지정되는 결실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이번 성과를 동력 삼아 임실 지역 내 산재한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심도 있는 연구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임실 문화유산의 학술적·향토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서귀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약 체결

산촌과 제주, 지역 경계 넘어 도시재생 노하우 공유

무주군과 서귀포시의 도시재생 협력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14일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서귀포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 내륙 산악형 소도시와 제주 원도심이 지역 경계를 넘어 손을 맞잡은 매우 이례적인 도시재생 협력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지식 전수가 아닌, 대등한 파트너로서 두 지역이 현장 경험을 교류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는 차별화된다는 평가다.

앞으로 두 기관은 도시재생 거점시설

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주민 주도 공동체 활성화에 협력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체계·관리방식·공간활용 원칙 등을 공유하고 상호 벤치마킹하며 문화·예술·교육·생활밀착형 및 지역특화·세대통합 프로그램 발굴과 교류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협의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자원활동가 양성 등의 공동체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연 1회 이상 상호 방문·실무 워크숍·공동 세미나 및 포럼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윅·프로그램 참여도·주민만족도 등의 성과지표 공동 개발 및 자료를 공유하고 도시재생 관련 정부 정책·공모사업·지원제도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협

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무주읍 도심 내 거점시설 운영을 통해 쌓은 농촌·산악형 소도시 맞춤형 재생 경험을, 서귀포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에서 주민협의체와 거점시설을 운영해 온 도심형 원도심 재생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각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지속 가능성을 함께 높여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은 7월 중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연간 교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첫 상호 방문과 현장 간담회를 올해 안에 개최하며, 거점시설 운영 우수사례 교류회도 연 1회 이상 정례화할 방침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자원순환 우수 마을 평가' 실시

자원순환 실천 문화 확산 기대

임실군은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률 제고 등 주민 주도의 자원순환 정책 실행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6년 자원순환 우수 읍·면 및 마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11월 중 실시되며, 관내 12개 읍·면과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번 평가를 통해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읍·면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환경 분야에 대한 군민의 관심도

를 높여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평가는 총 3개분야 9개 지표로 구성되는데, '폐기물처리 역량' 분야에서는 △대정소의 날 운영 △방치폐기물 처리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실적 등을 평가하며, '자원 재활용 확대' 분야에서는 △분리배출시설 설치 △폐전전자 및 종이팩 수거 △영농폐비닐 수거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청소행정 역량' 분야에서는 △재배정예산 조기 집행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등 폐기물 배출시설 관리 적정성 △교육·홍보 실적 등을 평가

하며, 업무추진 협조가 우수한 읍·면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우수 읍면은 평가표에 따른 정량평가로 선정되며, 우수 마을은 읍면 추천을 바탕으로 현지 확인을 거쳐 선정된다. 특히 마을 평가는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 여부,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공동집하장 관리 상태 등 현장 중심의 실천수준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읍·면 부문은 최우수 1개소, 우수 3개소, 마을 부문은 최우수 1개소, 우수 3개소, 장려 2개소를 각각 지급한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독거노인 홈클리닝 사업' 추진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무주군이 '2026년 독거노인 홈클리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홈클리닝 사업은 전염병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오는 11월까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내 저소득 독거노인 2백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대상 가구는 연 3회 방문할 예정으로,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소독제를 활용해 실내 방역과 해충 방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주=최희호 기자

또한 △주방 냉장고 정리 및 후드 필터 청소 △침실내 청소 및 폐기물 처리 등에 집중해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 등 각종 전염성 질환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박은정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은 "홈클리닝 사업은 청소를 넘어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울감을 완화하고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까지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정 방문 시 안부 확인을 병행해 고독사 예방 등 총괄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복숭아매실 활용 식품제조 역량 강화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식품제조실습 교육운영

임실군은 지역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식품산업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특화품목 6차산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제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는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농가와 예비창업자, 가공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복숭아·매실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제조 역량강화 교육을 전개하며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

이번 교육은 임실 관내 복숭아·매실 생산 농가와 식품가공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가공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연구소 식품개발연구동 및 실험실에서 진행되며, 이론 교육과 제조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원료 배합, 가열 및 혼합, 발효기술 및 분류 공정, 제품 관능평가 등 식품제조 전반에 대한 실습이 이뤄졌다.

참여 교육생들은 연구소의 제조 장비를 활용해 실제 제품과 과정에 가까운 제조 절차를 경험했으며, 이를 통해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기초 기술과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가정의 달 맞아 '숲속치유 프로그램' 운영

가족 소통·힐링 위한 자연 체험

장수군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숲속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 속에서 가족이 함께 교감하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와룡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한 '장수치유의숲'과 '방화동자연휴양림' 두 곳에서 진행됐다.

먼저 '장수치유의숲'에서는 피톤치드 가득한 숲길을 맨발로 걸으며 오감을 깨우는 '숲속 맨발 걷기'와 지친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아로마 발 마사

이들과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활동도 마련돼 참가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방화동자연휴양림'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을 돕는 '오감 체험'을 비롯해 카프라 블록을 활용한 창의 놀이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돼 가족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자연 속에서 함께 활동하며 일상에서 부족했던 대화와 교감의 시간을 나누고, 몸과 마음의 피로를 해소하는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이정우 장수군수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산림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또한 솔방울 골프와 새총 쏘기 등 아

진안군, 마이산 북부 '맨발걷기 길' 개장

5월 15일~10월 31일까지

마이산 북부 일원에 조성된 '맨발걷기 좋은 길'이 단장을 마치고 방문객을 맞이한다.

진안군은 최근 건강과 치유 중심의 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맨발걷기를 통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조성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개장한 맨발걷기 길은 사양제를 거쳐 생태공원까지 이어지는 총 1.4km 구간으로, 황토와 마사토를 활용해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됐다. 구간별 특성을 살려 사양제 순환 마

사토길과 생태공원(구 압석원) 내 황토길, 맨발걷기 테마존(황토밭장, 자갈장), 세죽장 등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다양한 촉감을 체험하며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맨발걷기 길의 운영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진안군은 앞으로도 이용객 의견을 반영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환경 정비를 통해, 마이산 맨발걷기 길을 사계절 찾고 싶은 대표 힐링 명소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김제 스마트팜 청년농들, 직접 키운 농산물로 나눔 실천

김제시는 2026년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청년 농 단체인 Harvest Hub(대표 성다애)가 관내 저소득 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직접 재배한 농산물(15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Harvest Hub는 2026년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한 청년농들로 구성된 단체로, 첨단 농업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 기탁은 지역 스마트농업의 주역인 청년들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했으며 청년 농업인들이 정성껏 키운 오이, 완숙토마토, 방울토마토와 토마토즙 등으로 구성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Harvest Hub 성다애 대표는 “스마트팜에서 탐 흘려 수확한 농산물이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농부들의 활기찬 에너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군산 해신동, 취약계층에 에어컨 지원 사업 추진

군산시 해신동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 10가구를 대상으로 벽걸이 에어컨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여름철 실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해신동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냉방시설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지역 내 복지지원과 협력해 에어컨 설치를 추진했다.

에어컨을 지원받은 한 독거노인은 “머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했는데, 이렇게 에어컨을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미영 해신동장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임근석 기자

네이처스팜·익산 종로약국, 취약계층에 영양제 지원

어린이 영양제·유산균 등 1억 700만원 상당 기탁

익산시에 취약계층 아동과 장애인 가정의 건강을 살피는 나눔이 전달됐다.

시는 14일 ‘㈜네이처스팜(대표 이사 이재관)’과 ‘익산종로약국(대표약사 문규성)’이 1억 700만 원 상당의 영양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아동과 장애인 가정의 건강 증진과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어린이 영양제

와 유산균 등 총 5종으로, 지역 내 저소득 가정과 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네이처스팜 관계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규성 대표약사는 “지역사회에서 받은 관심과 사랑을 환원하고자 기탁에 동참했다”며 “가까이에서 주민의 건강을 살피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는 14일 ㈜네이처스팜(대표이사 이재관)과 ‘익산종로약국(대표약사 문규성)’이 1억 700만 원 상당의 영양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진=익산시>



완주 구이노인복지센터, ‘장조림·서리태’ 나눔 진행

완주군 구이노인복지센터(센터장 안정현)가 가정의달을 맞아 지역업체인 학래촌으로부터 돼지고기 100근을 후원받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을 위한 장조림 나눔 행사를 열었다.

센터는 장조림 조리엔 필요한 각종 재료를 함께 준비했으며, 생활지원사들이 직접 재료를 다듬고 손질하며 정성을 담아 음식을 만들었다. 생활지원사들은 구이 지역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200여 가정을 직접 방문해 장조림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꼼꼼히 살폈다.

이와 더불어 이서농협에서 서리태 300kg을 후원해 이서 지역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300여 명에게 전달하며 온기를 더했다.

안정현 구이노인복지센터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균형 있는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식사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대한적십자사 전북 RCY 단원, 스승의 날 캠페인 전개

감사·존경의 마음 전달 빵 나눔·유기견 봉사 등 진행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김홍식)는 도내 청소년적십자(RCY) 결단교 22개교의 단원 600여 명이 스승의 날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승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사제동행 봉사활동’으로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존중

하고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제동행 제빵봉사 △유기견 봉사활동 △스승의 날 의미 되새기기 △스캐너링 만들기 △감사 카드 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직접 만든 빵과 따뜻한 마음을 이웃과 나누며 나눔과 배려의 인도주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은지 기자



고창(주인플러스, 저소득층에 싱크대 4대 후원

고창군 아산면 농공단지에서 위치한 주방가구 전문업체(주인플러스)가 지속적인 나눔실천을 위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싱크대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진행했다.

주인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관내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싱크대 신규설치 사업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도 낡고 오래된 주방시설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가정을 읍·면으

로부터 추천받아 현지출장과 생활 실태확인을 실시한 뒤 최종 지원 대상 4세대를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했다.

주인플러스는 전북 굴지의 가구 업체로 KS표시 인증, 전북유망중소기업 선정,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등에 선정된 바 있고 우수한 주방가구와 일반가구를 생산하여 LH공사 등에 주방가구를 납품하는 건설한 중소기업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정읍시 공무원들, 딸기 농가 찾아 구슬팜

정읍시는 지난 13일 북면에 있는 호호베리 딸기농장을 찾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자 딸기 결손 제거 작업을 펼쳤다.

이날 일손 돕기에는 정북면사무소와 시민소통실, 농촌지원과 소속 직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을 구하기 힘든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자 딸기밭에 모여 팔을 걷어붙였다. 직원들은 농장주 이

호 씨의 작업 설명을 들은 뒤 서툰 솜씨지만 정성을 다해 결손을 솥내 구슬팜을 흘렸다.

김영덕 시민소통실장은 “바쁜 영농철에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 태우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따뜻한 행정을 꾸준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새마을운동남원시지회,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새마을운동남원시지회(회장 조용봉)는 지난 13일 남원시 송동면 신흥리 일원에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참여해 복숭아 봉지 씌우기 작업과 딸기 따기 작업 등을 도우며 농가의 일손 부담을 덜었다. 특히 복숭아 봉지 씌우기는 병해충 예방과 품질 향상에 중요한 작업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한 시기이며, 딸기 수확 또한 적기 작업이 중요한 만큼 이날 봉사활동이 농가에 큰 도움이 됐다.

조용봉 지회장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1



손씻기

30초 이상 비누로 깨끗이 씻기

2



익혀먹기

육류, 생선류는 충분히 익혀 먹기

3



끓여먹기

물은 끓여서 먹기



〈一事一言〉



악성 민원인 3,000만 원 배상 판결은 시작일 뿐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차기 교육감의 제1과제는 '법적 안전망' 구축이다

교육의 전담이어야 할 학교가 어느덧 '민원의 전진터'로 변질된 지 오래다. 그 최전방에서 학부모의 폭언과 협박을 온몸으로 받아내던 교감들이 무너지고 있다.

평교사는 교권 보호 뒤로 숨고, 교육 당국은 행정적 잣대만 들이대는 사이, 중간 관리자라는 이름의 '교감'은 어느덧 학교의 방패가 아닌, 모든 비난과 화살을 받아내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버렸다. 최근 전북 내 초등학교에서 들려오는 교감들의 정신과 치료 소식과 승진 기피 현상은 전북 교육의 안전망이 통째로 붕괴되고 있음을 알리는 서글픈 경고음이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최근 들려온 법원의 판결은 가뭇의 단비와도 같다.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괴롭힌 학부모에게 법원이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본지는 이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이는 그동안 '교육적 이해'라는 미명 하에 묵인되어온 악의적인 괴롭힘이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사건이다. "내 아이의 기분"을 앞세워 타인의 인권과 교육권을 짓밟는 행위에는 엄중한 법적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

을 보여준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결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다. 소송은 길고 고통스러우며, 그 과정에서 교육자의 영혼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전히 학교 현장에 남아 있다. 현재 전북의 민원 대응 시스템은 철저히 학교 단위에 머물러 있다.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과 교감이 이를 '개인의 역량'으로 막아내야 한다. 민원인이 학교로 쳐들어와 폭언을 퍼부을 때, 교감은 교육청의 보호가 아니라 자신의 인내심에 기대어 버텨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교육 당국의 무책임한 방기다. 교감은 학교의 만능 방패가 아니라, 함께 보호받아야 할 교육자다. 악성 민원을 관리자 한 명의 수완으로 해결하려는 식의 구조는 사실상 교감을 사지로 모는 행위다.

이제 곧 전북 교육의 새로운 수장을 뽑는 선거가 다가온다. 차기 교육감은 민원 대응 체계를 학교라는 담장 안에 가둬둘 것이 아니라, 즉각 '교육지원청' 단위로 격상시켜야 한다. 학교는 오직 교육에만 전념하고, 법적 분쟁이나 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 변호사와 수사관급 인력이 배치된 '통합민원센터'가 전담하는 시스템으로 이원화해야 한다.

또한, 이번 3,000만 원 판결을 계기로 전북의 새로운 교육 행정은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가이드라인을

'실천적 원칙'으로 확립해야 한다.

단순히 "고소 대행을 돕겠다"는 수준을 넘어, 교육청이 직접 고발 주체가 되어 교원을 보호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악성 민원인이 학교 문을 넘기 전, 교육청의 법적 보호망이 먼저 작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자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방패가 부서지면 그 뒤에 서 있는 아이들도 함께 무너진다. 유능한 교사들이 교감이 되기를 두려워하고, 교감들이 명예 퇴직을 꿈꾸는 교단에 어떤 미래가 있겠는가. 이제 서거식 교육감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리더십을 기다리는 전북 교육계에 가장 절실한 것은 '말뿐인 위로'가 아닌 '제도적 방패'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전북 교육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은 이 비명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교감들에게 비겁한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차기 교육감이 교감의 든든한 법적·제도적 안전망이 되어줄 때, 비로소 전북 교육의 무너진 자존심도 다시 세워질 수 있다. 전북의 교육 미래는 관리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결단력 있는 행정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사설

부안군 금품 의혹, 지방정치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돈 선거 의혹이 지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부안군 기초의원 후보를 둘러싼 금품 살포 의혹은 단순한 선거철 소문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녹취와 영상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는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돈으로 사고팔려 한 중대한 범죄다.

더 심각한 것은 돈이 오갔다는 의혹의 장소와 방식이다. 면민의 날과 당산제, 지역 단체 행사 등은 주민 공동체의 신뢰와 정이 살아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 공간이 표를 거래하는 정적의 장으로 변질됐다면 이는 공동체 자체에 대한 모독이다. 주민을 섬겨야 할 지방정치가 주민을 대상으로 금품을 살포하며 표를 구걸하는 수준까지 추락했다면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관행이었다", "격려금이었다", "회수했다"는 식의 공색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돈을 건네고 지지를 부탁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정치가 아니라 거래다. 유권자의

선택을 정책과 비전이 아니라 현금과 관계로 움직이려는 구태정치 민낯일 뿐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데 있다. 지방선거 때마다 금품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처벌이 약해서이기도 하고, 지역사회가 이를 너무 쉽게 용인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돈 봉투 한 장이 지역정치를 망치고 결국 주민 삶의 질까지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왔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녹취와 영상의 진위, 실제 금품 전달 여부, 선거 목적성 등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작은 지역일수록 법의 기준은 더 엄정해야 한다. 지역사회가 혈연과 지연으로 얽혀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 원칙까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도 달라져야 한다. 돈 선거를 외면하거나 침묵하는 순간 지역정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수준만큼 성장한다. 돈으로 표를 사려는 정치인을 단호히 퇴출시키는 것, 지역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독자투고

인도 위의 질주, 보행자의 일상을 위협합니다



최근 이륜차의 인도 주행이 끊이지 않으면서 보행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래 인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지만,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편의를 이유로 이를 침범하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간 도내에서 총 3,795건의 이륜차 인도 주행이 적발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91건, 2022년 966건, 2023년 888건, 2024년 989건, 2025년 561건 등 매년 꾸준히 이륜차 인도 주행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보행자는 교통약자입니다.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 역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이륜차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심리적 안전이 확보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이륜차 주행은 더 큰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중대한 안전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차량 사고보다 보행자의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운전자들은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거나 이동 편의를 위해 인도를 주행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결코 가벼운 위반이 아니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무엇보다 한순간의 편의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뿐 아니라 시민 의식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운전자는 인도는 절대 주행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하며, 보행자 역시 위험 상황을 목격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 확보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은 누군가의 노력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본적인 교통질서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도는 '잠시 이용해도 되는 공간'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보행자의 권리 공간입니다.

군산경찰서 범죄예방계 경위 김현섭

오늘의시

스승 / 이정부

스승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平壤 어디 옛친구 집이거나 낮익은 마을 어디에 떠돌이로 계실 것만 같다

오갈 수 없는 땅덩이 하늘에 부끄러워 여전히 고개 숙이고 걸으시는 스승은 아무래도 돌아가신 것이 아닐 것 같다

길 떠날 채버를 하실 것만 같다 기뻐하게 맞춘은 커피 한잔 찾아 自由를 찾아 깨지지 않는 대추씨로

南쪽에 둔 五男妹 걱정도 잠깐 하시고

철조망 넘어 나들이 간 바람처럼 또 일어나

半島 어느 동구 밖에 서 계실 것만 같다

시인 약력 : 1942년 광주광역시 출생.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62년 현대문학 추천 원료로 등단했다. 1967년 동아일보신춘문예에 '우리들의 양식'이 당선됐다. 현대문학상, 한국문학 작가상, 제18회 공초문학상을 비롯해 2011년에는 제9회 영랑시문학상과 제24회 경희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이정부 시집', '우리들의 양식', '백제행', '전야' 등이 있다. 2012년 세상과 작별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화/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8502
인후지국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팔복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₂ 줄이기, 바로 지금 나부터!
우리의 작은실천이 푸른 하늘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JBT 전북타임스신문

김제시가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일하는 노후, 활기찬 일상”을 실현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이웃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일자리 사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김제시는 이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참여형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편집자 주>



일하는 노후, 함께 만드는 따뜻한 김제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성과와 현장 이야기

“용돈이 아니라 보람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상에서 시작된 변화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활력이 생겼어요.”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참여 중인 한 어르신이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맞춰 외출해 지역 환경정비 활동을 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작은 활동이지만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교류도 늘어나고 있다.

또 다른 참여 어르신은 노인역량활용사업단에 참여하며 “일을 통해 얻는 소득도 의미 있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삶의 활력을 더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공익활동부터 역량활용까지...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제공”

김제시는 어르신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 노인공익활동사업(마을길조성사업, 경로당안전지킴이 등) △ 노인역량활용사업(건강안심데이터, 시니어 안전서포터즈 등) △ 공동체사업단(사계절농장, 지평선마을방송 등) △취업지원(일자리 연계)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동체사업단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확대되며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노인역량활용 일자리는 지역 돌봄과 공공·민간서비스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웃는다”... 공동체 회복 효과

노인일자리 사업은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관계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참여 어르신들은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웃과 교류하며,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울감 감소와 자존감 향상으로 이어지며,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규칙적인 외부 활동을 통해 신체 활동량이 증가하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며 일상에 대한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 삶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을 넘어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라고 전했다.

“지역이 함께 만든다”... 민관 협력으로 더 넓어지는 일자리

김제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역 내 시니어클럽, 복지기관 등 9개 수행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으며 어르신의 활동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또한 수행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 어르신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민관 협력은 지역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성과로 증명하다”... 삶의 질을 바꾸는 정책 효과

김제시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 확대와 함께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입증하고 있다. 특히 경로당 밀반찬 배달 지원사업은 2025년 관내 경로당 4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26년에는 80개소로 확대되며 사업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직접 전달에 참여함으로써 돌봄과 일자리를 연계한 대표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민관 협력을 통한 추진 기반도 강화되고 있다. 김제시는 도드람김제FMC 및 목우촌 김제육가공공장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밀반찬 조리 에 필요한 돈육 및 육가공품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시는 이에 발맞춰 행정적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김제시 노인일자리 사업은 현장에서 검증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된 실질적인 정책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하는 노후가 곧 행복”... 김제의 미래

김제시는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단순한 참여사업이 아닌 돌봄·여가·사회참여와 연계된 통합형 노후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이 지역사회 안에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활동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